

자동차 100만대 생산 속도 내고 에너지밸리 조성 본격화

광주시

첫 시민시장으로 불리는 윤장현 시장은 민선 6기 전반기 광주시정을 민생을 향한 정직하고 담대한 변화를 시도한 2년으로 자평했다.

여기에 자동차와 에너지, 문화 등 3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씨앗을 뿌린 시기로 평가하고 민선 6기 후반기에는 그 열매를 확실하게 거두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직하고 폭넓은 소통,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는 윤 시장의 핵심 국정 키워드였다.

하지만 정통관료도 직접 정치인도 아닌 의사이자 시민사회 활동가에서 시정을 책임지는 행정가로 변신한 2년은 명암(明暗)이 극명하게 갈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자치시대에 시정이 나아갈 희망과 비전을 보여줬다는 호평에서 능력과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까지 다양하다. 광주시는 민선 6기 전반기 의미 있는 변화로 10가지 지를 내세웠다. 우선 호남 최초이자 최대 국제행사였던 2015 광주U대회는 저비용 고효율의 명품대회, 시민의 힘으로 메르스를 막아내고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자긍심을 시민에게 안겼다.

메르스 극복 U대회 성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호평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갈등

세계수영대회 마찰 아쉬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조성을 위한 토대로 뒤였다. 자동차 100만대 조성 사업은 국가 예비타당성 통과를 앞두고 있고, 중국 조이롱 자동차 유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에너지 산업은 남구 도시첨단 산단 조성, 에너지 기업 유치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도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예타를 통과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청년위원회 운영, 청년센터 개관 등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시스템 구축 등은 광주표 청년 정책이다. 소통과 참여의 시민 가치 실현도 눈길을 끈다. 관사를 없애고 소형 관용차 교체, 외전 인력 축소 등은 시민 친화(親和) 시장의 면면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윤 시장이 짚는 2년 성과의 백미다.

광주형 사회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복지재단 출범,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체계 구축도 의미있는 변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프린지 페스티벌 개최 등 문화전당 주변을 예술과 젊음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매력도시 건설에서도 문화수도 광주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전반기는 성과 뒤에 아쉬움도 적지 않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시작됐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1년 반을 논란과 갈등 속에 허비했다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2019 세계수영대회 역시 개최여부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사무총장 내정 철회 문제로 어수선 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

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기업 투자, 인프라 구축 등이 구체화하지 못한 점은 광주시 스스로도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는 대목이다.

광주공항 문제, 한전 에너지 연구개발 센터 유치 등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남과의 상생이 걸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다. KTX개통, 문화전당 개관 등에도 불구하고 외지 관광객 유입 등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점은 지역 활로의 구심점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전남도

전남도 민선 6기는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활기있는 지역경제 ▲소득 높은 농축어업 ▲매력있는 문화관광 ▲온정 있는 도민복지 ▲소통하는 창의도정을 지표로 삼고 출범했다. 민선 6기 3년차를 맞이하는 이낙연 전남지사는 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숲 속의 전남 만들기'를 양 수레바퀴로 삼아 도정을 운영했다.

민선6기 전반기의 성과로는 크게 ▲일자리 대상과 투자 유치 제고 ▲빛가람혁신도시 정착과 에너지밸리사업 본격화 ▲숲·섬·남도문예 가치 재발견 등을 들 수 있다. 2년이라는 단기간에 정체돼 있는 전남에 발전 계기를 만들었다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공항·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미흡 ▲광주·전북과의 상생 내실화 ▲고령화·저출산·인구 감소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전남도는 지난 2년을 오랜 침체와 낙후를 끝내고 활기·매력·온정이 넘치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제조업 종사자가 17년만에 10만명을 회복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에 도정의 역할

숲·섬·문예 가치 재발견

일자리 1만여개 창출

무안공항 활성화 지원

청년 유출 등 대책 시급

을 모두 결집시키면서 농도인 전남이 '2016 일자리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방위적 투자 유치 노력과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로 2년간 309개 기업 유치, 2조4588억원의 투자 실현, 일자리 1만439개 창출 등의 성과도 냈다.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빛가람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에너지밸리'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에너지 관련 기업 133개가 들어설 예정이며, 에너지산업 실증·성능시험을 지원하는 '한전 에너지밸리 R&D센터' 건립도 최근 결정됐다.

정부 최초 승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해남), 영세 소상공인 일수대출 금리 인하, 100원 택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 히트작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전남형

복지정책'이라는 용어도 만들어냈다.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과 숲을 주제로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남종화, 정자·정원, 판소리, 도예·공예, 종가문화 등 유·무형의 전통문화예술 자원을 지역발전 동력으로 재창조하는 노력의 산물인 '남도 문예네상스'도 추켜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변화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청년인구 유출, 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산,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미래성장 동력 부재 등 전남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에 대해 2년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일부 성과는 나타냈지만, 확실한 지역 미래 비전으로 자리잡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안공항 활성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순창~목포) 무안공항 경유, 광양항 쇄락 등 지역현안도 정부에 요구만할뿐 그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 차일피일 연기되고 있을 뿐이다. 전남을 찾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면세점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못해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이 2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2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2년의 성과와 성과, 향후 시장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시민복지·민생경제에 모든 역량 집중”

윤장현 시장 회견 “속도 보다 방향이 중요...후반기 열매 거둘 것”

윤장현 광주시장은 21일 “그동안 해왔듯 민선 6기 후반기 시정의 모든 중심도 민생”이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일자리,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2년’ 기자회견을 하고 취임 2년간의 성과와 성과를 밝히고 하반기 시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 시장은 “(광주) 첫 시민시장으로서 모든 민생 현안의 판단 기준을 ‘인간의 존엄’과 ‘시민의 행복’에 뒀다”면서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살핌,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산업 기를 마련에 모든 정성을 다했다”고 소회했다. 그는 이어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 기대에 부응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난 2년을 겸허히 성찰하면서 더 많은 지혜를 구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윤 시장은 “민선 6기 후반기에도 시민복지와 민생경제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우 전반기가 씨앗을 뿌리는 시기였다면, 후반기는 그 열매를 확실하게 거두는 시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동차 100만대 사업 예타를 통과시키고 자동차 전용산단, 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해 광주를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호남연구소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사업 등 고령친화산업 시장 선점 구상계획도 밝혔다.

윤 시장은 명품강소기업 확대, 하남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 도시브랜드 혁신, 특급호텔 건립과 면세점 유치를 통한 관광여건 개선, 도시철도 2호선 임기 내 착공,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내년 착공 등 현안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묵은 현안들이 속 시원히 빠르게 결정되지 못해 시민이 답답해하셨다는 것을 잘 안다”며 “빠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으로 속도를 거둬들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근 제2순환도로 재정절감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해묵은 현안들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고 밝히고 “롯데마트 월드킴점 불법 전대주의 사회환원 문제와 운정동 태양광 설치사업 등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사용수의 재협약 등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2019 세계수영대회도 저비용 고효율의 지구촌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창사 64주년

곧! 찾아옵니다

계림동 영무예다음

동구의 프리미엄을 완성할 930세대 압도적 스케일

한걸음으로 누리는 즐거움

중소형으로 누리는 가벼움

대단지에서 누리는 부러움

54㎡ A·B / 74㎡ / 84㎡ A·B 시공 VITE | 주영무토건 문의 062) 368-3900